

보도일시 (인터넷) 2023. 11. 1.(수) 11:00,
(지면) 2023. 11. 2.(목) 조간

배포 2023. 11. 1.(수) 06:00

대한민국, 남극해 해양생물 보존 관리를 위한 선도국가로 입지 다져

- ‘제42차 남극해양생물보존위원회 연례회의’에서 해양보호구역 확대 논의 및 회원국 준법 강화 적극 주도

해양수산부(장관 조승환)는 10월 16일부터 27일까지 호주 호바트에서 개최된 ‘제42차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(이하 CCAMLR)’에 참석하여 남극해 해양생물 자원 보호 및 남극 조업 관리를 위한 선도국가로서 입지를 다졌다고 밝혔다.

이번 회의에서는 회원국들의 남극 조업규범 준수 현황을 검토하였으며, 그 결과 우리나라는 11개 이빨고기 조업국 중 유일하게 모든 규정을 준수한 나라로 평가받았다. 또한, 우리나라는 회원국 중 최대 척수인 11척(이빨고기 8척, 크릴 3척)의 입어를 신청하여 최종 승인을 받았다.

아울러, 우리나라는 동부남극해 및 웨델해 해양보호구역 지정 제안서의 공동발의국으로 참여하여 제안서의 채택을 촉구하였으며, 뉴질랜드와 함께 남극해 내 유실어구 관리를 위한 추진계획을 제안하여 만장일치로 채택되기도 했다.

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CCAMLR의 남극해 크릴조업 관리조치 논의를 위한 기술회의* 개최가 결정되었고, 해양수산부 김정례 주무관이 공동의장으로 선출되었다. 김 주무관은 CCAMLR 이행위원회 의장직(‘16년~’20년) 경력으로 그 능력을 인정받아 왔으며, 이번 공동의장 선출로 남극해 크릴 관리 논의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이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.

* Symposium on harmonisation of conservation and krill fishery management initiatives in the Antarctic Peninsula Region, ‘24년 7월 예정 / 장소 미정

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“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남극해 해양생물 보호 및 해양 안전 강화에 대한 논의를 주도하며 선도국가로서의 입지를 다졌다.”라며, “아울러, 앞으로도 책임있는 조업국으로서 우리 원양어선의 준법 조업을 지속적으로 독려해 나가겠다.”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국제협력정책관	책임자	과 장	임지현 (044-200-5330)
	국제협력총괄과	담당자	주무관	원태훈 (044-200-5334)
	국립수산물과학원	책임자	과 장	이재봉 (051-720-2310)
	원양자원과	담당자	연구사	정상덕 (051-720-2322)

참고

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(CCAMLR) 개요

* 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

□ **설립 및 발효** : '82. 4. 7(우리나라 가입일 : '85.4.28)

□ **목 적** : 남극해양 생물자원 보존 및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여 설립

□ **조 직**

○(회원국) 27개국(한국, 아르헨티나, 오스트레일리아, 벨기에, 브라질, 칠레, 중국, EU, 프랑스, 독일, 인도, 이탈리아, 일본, 나미비아, 뉴질랜드, 노르웨이, 폴란드, 러시아, 남아공, 스페인, 스웨덴, 우크라이나, 영국, 미국, 우루과이, 네덜란드, 에콰도르)

○(사무국 소재지 및 사무국장) 호주(타즈매니아) / David Agnew(영국)

○(의장단) 총회의장은 2년 임기로 회원국별 순번제('23~'24 우크라이나)

□ **쿼터 및 우리나라 관련 현황(22/23 어기 기준)**

※ 국별 쿼터 없이 총허용어획량(TAC)을 **올림픽 방식(선착순)**으로 조업/ 이빨고기는 전 세계 최고가 어종 중 하나로, **22/23 어기 톤당 가격은 약 USD 30,000**로 형성('22년 우리나라 수출 수산물 중 3위)

어종	TAC(톤)	우리나라 어획량(톤)	진출 선사 및 척수
이빨고기	5,660	1,759	저연승선 6척
크릴	806,000	35,781	트롤선 3척

□ **협약수역**

